

2015 10. 11 연중 제 28 주일

제 1 독서 : 지 혜 서 7,7-11 <나는 지혜에 비기면 많은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제 2 독서 : 히 브 리 4,12-1 <하느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복 음 : 마 르 코 10,17-30 <가진 것을 팔고 나를 따라라. >



베이커스필드 성클레멘테성당 : 본당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오늘 연중 제 28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제가 저의 어머니를 자꾸 떠올리게 됩니다. 거의 3 주동안 물도 못 넘기시고 영양주사로 지탱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의사의 말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를 보고 가시려는 마음이 계신지? 그러면서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정신이 머~영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4 년동안 병원에서 그렇게 지내내시는 것이 그분한테는 하나의 고문입니다. 마음껏 돌아다니시던 분이 그 조그만 침대에 4 년동안 갇혀서 이제나, 저제나 하고 계신 것을 생각하면 신앙적으로 떠나시는 것이 그 분께는 훨씬 좋고, 인간적으로 따지면 제가 자주 찾아 뵙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아계셨으면 하는 바람이 한편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가 정한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지요. 찾아오는 죽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아쉬움과 서러움이 사라질것 입니다. 주님께 모든것을 맡길 때에

최근에 어떤 자매님이 저에게 질문을 한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질문한 것이 아니라 어떤 대학생이 그 자매에게 질문한것을 저한테 중개를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하느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렇다면 미래까지도 다 알고 계신데 우리가 뭐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되는대로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언뜻 대답이 떠오르지를 않았습니다. 배운것이 있었는데도 ... 그래서 설명을 하여 주었는데도 시원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묵상을 하고, 다시 공부한것을 들여다보며 그 답을 얻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미래도 아시려고 하시면 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을 접으신 분이십니다. 왜냐?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기때문에

흔히 우리는 이런 말을 하지요. 사실 불교의 영향을 받은것 같습니다. 운명이다! 운명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의 신앙에서는 운명이라는 것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창조 하실 때에 이미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분이 우리의 미래를 단정 짓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즉 우리 스스로 그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미래를 만들어 가는 우리를 어떻게 도와 주시느냐 하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입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것에 주님이 도움을 주시는 것 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 가는 것 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그 전지 전능하신 분께서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의지 없이 관여를 안하시기로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서는 지금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모르십니다. 왜냐? 아시고자 않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가 막가는 길로 가면! 아버지가 아들이 독을 먹는데 그것을 막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대로 두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너희들의 삶을 만들어가라! 고 하십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이 젊은 청년이 물어 보지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위해서 저는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질문을 평상시에 하셨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께 질문하고 요구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건강과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하지만 영생의 삶에 대해서는 거의 질문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힘이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해 있기 때문에, 내세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못합니다. 언제 신경을 쓰느냐 하면 죽기 전에, 그것도 신앙이 있으신 분들이 죽기 며칠전에 내세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됩니다. 여기

에서도 신앙이 부족한 사람들은 죽기가 두려운 것이지요.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

예수님이 그 질문을 받았을때에 , 영생의 삶을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하느냐 하면 , 가진것을 다 팔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진것 을 돈으로, 물질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 그것 뿐만이 아닙니다. 너희가 가진 생각과 계획을 다 내려 놓아라 ! 너의 생활 방식과 너의 느낌과 기분을 다 내려 놓아라 ! 그래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 특히 요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 전체적으로 상담을 해보고, 또한 신문이나 서적을 보면 그 사람들이 바늘 귀를 통과 할 수 없는 이유는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요 . 자기 기분이 너무 크고, 자기 느낌과 자기 자존심이 너무 큼니다. 그래서 그 바늘귀를 통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능력으로는 그것을 통과 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하느님께서서는 가능하다. 그것은 무슨말씀이시냐 ? 하면 , 우리가 하느님의 능력을 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존심과 느낌과 기분을 내려 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 ? 안가지고 있으면 질 것 같은데 어떻게 내려 놓습니까? 그러나 하느님께 의지 하는 분들은 내려 놓습니다. 그래서 그 좁은 바늘 귀를 통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나라는 인간적으로만 살아가면서 , 또 인간의 느낌과 자존심과, 기분으로는 절대로 들어 갈 수 가 없습니다. **하느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그 분께 맡겼을때에 그분의 은총으로 들어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 기분과 느낌과 자존심에 좌우 되지 마십시오. 사도 바오로께서 말씀 하시는 것 처럼 하느님의 은혜를 입으십시오. 그 옷을 입어야 이 세상의 박해도 어려움도 쉽게 넘어 갈수 있을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시편 130(129),3-4 참조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이스라엘의 하느님,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옵니다.

<나는 지혜에 비기면 많은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7,7-11

내가 기도하자 나에게 예지가 주어지고,
간청을 올리자

지혜의 영이 나에게 왔다.

나는 지혜를 왕홀과 왕좌보다 더 좋아하고,
지혜에 비기면 많은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였으며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보석도 지혜와 견주지 않았다.

온 세상의 금도 지혜와 마주하면

한 줌의 모래이고,

은도 지혜 앞에서는

진흙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나는 지혜를 건강이나 미모보다 더 사랑하고,
빛보다 지혜를 갖기를 선호하였다.

지혜에서 끊임없이 광채가 나오기 때문이다.

지혜와 함께 좋은 것이 다 나에게 왔다.

지혜의 손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재산이 들려 있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시편 90(89),12-13.14-15.16-17(◎ 14 참조)

◎ 주님,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가 기뻐하리이다.

○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주님,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가 기뻐하리이다.

○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저희가 비참했던 그 날수만큼, 불행했던 그 헛수만큼 저희를 기쁘게 하소서.

◎ 주님,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가 기뻐하리이다.

○ 당신 하신 일을 당신 종들에게,

당신 영광을 그 자손들 위에 드러내소서.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실어 주소서.

◎ 주님,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 주소서. 저희가 기뻐하리이다.

<하느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4,12-13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러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어떠한 피조물도
감추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 눈에는
모든 것이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한 하느님께
우리는 셈을 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가진 것을 팔고 나를 따라라.>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0,17-30<또는 10,17-27>

짧은 독서를 할 때에는 < > 부분을 생략한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해서는 안 된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횡령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가 예수님께 “스승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에 놀랐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거듭 말씀하셨다. “얘들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자 제자들이 더욱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 그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백 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